

번역과 문학정전(正典)의 시대적 다시쓰기:
소설 『아큐정전(阿Q正傳)』 한역본(韓譯本)
분석을 중심으로(1978~2018)*

이 지 영
(한국외대)

1. 서론

문학정전(Canon)은 오랫동안 본질적으로 훌륭한 문학적 질을 내재한, 모범적인 문학작품 목록으로 인식되어 왔다. 시대를 초월하여 특별히 전승될 가치

* 본 논문은 필자의 선행연구인 학위논문 『번역과 문학정전의 시대적 수용 - 『아큐정전』 한역본 결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1972~2018)』의 후속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정 이데올로기와 포에티스가 문학정전 『아큐정전』이 시대별로 상이하게 수용된 번역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아큐정전』의 결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증하였다. 본고는 번역을 통한 문학정전 『아큐정전』의 시대적 수용의 또 다른 양상을 21세기 초 국내 출판시장에서 수행된 『아큐정전』의 번역텍스트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언어적 층위에서 분석한다. 보다 자세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과 주제 논의는 상술한 필자의 선행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가 있어 지속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 문학작품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고규진 2012: 14).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문학정전은 그것의 본래적 가치가 아닌, 그것을 둘러싼 특정 시대적 이유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산물로 인식된다(라영균 2000; 박인기 2008; 윤여탁 2008; 정인모 2008; 고규진 2012). 역사적으로 내용적 특성, 미학적 요소, 장르의 전통 등 문학 내적인 요소와 정치적 정세, 문화적 조건, 이데올로기 등 사회적 요소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문학정전을 선택하고 형성해왔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문학정전 텍스트를 선택하고 형성하는 기준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었고, 정전화를 수행하는 특정 그룹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임의적이었다(고규진 2012: 87-88). 문학정전은 텍스트의 문학적 속성과 특정 시대의 요청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사회문화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정전은 특정 시대적 현실 속에서 선택되고 형성된다.

번역과 문학정전의 통시적 연관성 관점에서 볼 때 원작은 목표문화권에서 지속적인 번역 과정을 거쳐야만 정전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번역의 역사는 정전의 지위 유지에 필수적이다. 원작은 상이한 시공간에서 지속적인 번역을 거쳐야만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텍스트의 ‘영속적 생존과 번영’을 꿈꿀 수 있다. 문학정전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고려할 때, 원작이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목표문화권에서 새롭게 정전으로 탈바꿈하고, 지속적으로 정전의 자리를 지키려면, 번역이란 ‘사회적 검증’ 과정을 통해 새로운 수용사회에 걸맞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문학정전은 또한 번역이란 사회문화적 중재 과정을 통해 시대적으로 상이하게 수용된다. 문학정전이 그것의 문학 내적인 속성과 그것이 처하게 될 사회문화적 맥락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선택 및 해석의 임시 결과물임을 다시 상기해보면, 정전의 번역은 결국 통시적 관점에서 정전 텍스트를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목표문화권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즉, 시대마다 정전 수용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달라지므로 정전 텍스트의 번역은 시대적 수용 양상을 떨 수밖에 없다(이지영 2019: 220-221).

본 논문에서는 문학정전 『아큐정전(阿Q正傳)』 한역본(韓譯本)의 시대적 수용양상을 번역본의 언어적 층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번역학의 다시쓰기(rewriting) 개념을 차용하여 번역본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번역텍스트가 시대별

로 어떻게 다시 쓰여졌는지 기록하고 그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언어가 시공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호 체계임을 고려할 때 동일 원작의 여러 번역본의 언어적 특성 차이를 고찰하는 것은 정전 수용의 시대적 양상을 살펴보는 데 유익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출판 번역을 통해 시대별로 상이하게 수용된 문학정전이 어떻게 다시쓰기 되었는지, 즉 번역텍스트의 언어가 어떻게 변형되어 새로운 수용자에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또한 언어적 고찰을 중심으로 번역, 출판을 통한 『아큐정전』의 시대별 수용양상에 대해 맥락적 설명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한국사회의 번역현실을 부분적이거나 파악하고 이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대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아큐정전』의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적 변이 양상을 유형화하고,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아큐정전』 한역본의 출판번역물을 대상으로 다시쓰기 형태로 나타난 번역텍스트의 언어적 이질성을 시대별로 비교한 후, 이러한 차이점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되는 특정 시대적 배경을 모색한다. 이는 특정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사례연구 방법(case study)을 통해 번역현상을 분석하여 그것에 부여되는 의미들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사례연구는 조사대상인 특정 사례를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정밀하게 관찰하여 이들의 속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이를 통해 특정 현상을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이다(박휴용 2014: 124). 본고의 사례연구에서는 언어적 층위에서 다시쓰기된 번역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7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아큐정전』 출판번역물 가운데 시대별 언어 변이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16종의 번역텍스트이다. 이를 분석대상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별 수용성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번역을 통한 문학정전 텍스트의 다시쓰기 양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아큐정전』 한역본의 다시쓰기 양상을 그 출판시기에 따라 제 1기(1978~1994)와 제 2기(2003~2018)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시기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이유는 언어적 변이 양상이 상술한 시기별로 한국사회의 특정 사회적 맥락과 밀접히 관련되어 뚜렷이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비교 분석할 『아큐정전』 번역텍스트 16종이 수록된 출판번역물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아큐정전』 번역텍스트 수록 도서 16종

도서제목	작가	번역자	출판사	출판시기 (초판기준)
아큐정전, 대북인, 반하류사회	노신, 조자번, 백선용	허세욱	삼성출판사	1978.2
아큐정전, 조화석습	노신	이기원	동서문화사	1978.11
아큐정전	노신	윤화중, 강계철	학원사	1983.8
아큐정전, 광인일기	노신	김진욱	어문각	1986.7
아큐정전	노신	김욱	풍림출판사	1987.6
아큐정전 외	노신	김하중	금성출판사	1987.7
아큐정전	노신	이민수	혜원출판사	1991.4
아큐정전	루신	안영신	청목출판사	1994.9
아큐정전	루선	홍석표	선학사	2003.11
아큐정전	루선	임명신	살림	2006.9
아큐정전	루선	이옥연	문학동네	2011.2
아큐정전	루선	김태성	열린책들	2011.3
아큐정전	루선	신여준	글누림	2011.12
아큐정전	루선	김택규	푸른숲주니어	2013.12
아큐생명의 여섯 순간	루선, 왕후이	김영문	너머박스	2015.8
아큐정전	루선	조관희	마리박스	2018.1

그림 1 분석대상 번역텍스트 수록 도서 앞표지



3. 이론적 배경

3.1 다시쓰기(rewriting)

번역학에서 다시쓰기 개념은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의 저서 『번역, 다시쓰기 그리고 문학 명성의 조작(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이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르페브르는 번역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다시쓰기라고 말한다. 여기서 다시쓰기란 원작텍스트가 목표문화권의 특정 맥락에서 특정 의도나 방식대로 다시 쓰여지는 조작을 의미한다. 번역 이외에 다시 쓰여진 텍스트들로 해설, 비평, 요약, 역자후기, 역사기술 등도 존재하지만, 번역은 가장 영향력이 큰 다시쓰기 텍스트이다. 원작의 의미와 이미지가 번역을 통해 원천문화의 경계를 넘어 완전히 다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Lefevere 1992: 7-8)

다시쓰기 개념은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문화적 전환은 문화학적 관점에서 번역을 분석하는 연구 패러다임으로서, 이데올로기, 후원시스템, 포에틱스(Poetics) 등 목표문화권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및 결과에 집중하였다. 문화적 전환의 틀에서 번역은 번역수행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번역주체가 대부분 목표문화권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목표문화권의 문화, 역사, 관습 등 사회문화적 이슈들 가운데서 논의된다. 번역결과물인 번역텍스트 역시 언어적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문화간의 소통 사건으로 인식되므로 수용사회의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된다(Bassnett 2014: 30).

번역학에서 이러한 문화적 접근법은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어 주목 받아 새로운 연구흐름을 주도하였다. 번역 연구의 중심이 기존의 언어적 등가 및 내용의 충실성이란 좁은 틀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이슈들로 옮겨간 것이다. 이에 번역연구의 초점이 번역수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비대칭 권력구조, 지정학적 변화, 윤리의식, 출판환경, 문학시스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모여지게 되어, 번역연구의 외연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복잡한 번역현실을 보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번역가를 포함한 수많은 리라이터(rewriter)들은 시대적 현실에 따라 원작을 지속적으로 다시 써왔다. 일례로 『안네의 일기(*Anne Frank's Diary*)』도 특정 시기에 다시 쓰여진 바 있다. 『안네의 일기』는 1947년 네덜란드어 초판본이 출간되었고, 1950년과 1955년에 독일에서 각각 1종씩 독일본이 출간되었다. 1950년대에 출간된 『안네의 일기』 독일본 2종은 원전텍스트가 목표문화권 독자의 ‘정서’를 고려해 완전히 다시쓰기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시 출간된 독일본에서는 독일 독자들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원작의 내용이 대폭 생

략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예컨대, 독역본에서 “파시스트(facist) 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나치 독일의 유대인 집단수용소에 대한 기술 부분은 통째로 삭제되거나 그 표현 수위가 대폭 완화되었다. “수용소에 오래 갇혀 있었던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임신했다 등 나치 독일의 잔인한 실상을 기록한, 원작의 표현은 독역본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또한 “사람은 수백 명이었지만 욕실은 하나였고 화장실도 너무 적었다. 사람들은 그냥 잠잘 공간에 던져졌다 는, 원작의 구체적 기록 또한 “씻을 곳과 화장실이 너무 적었고 사람들 모두는 병사(兵舍)에서 함께 잤다고 한다 등의 표현의 수위가 완화된 문장으로 옮겨졌다. 르페브르는 독역본의 이러한 다시쓰기가 당시 독일 독자의 민족감정을 고려한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1950년대에 독일에서 출판된 『안네의 일기』 독역본 2종은 당시 독일 출판시장의 독자 ‘정서’를 고려해 수많은 오역과 함께 리라이팅되었다는 것이다(Lefevere 1992: 69-73).

다시쓰기 개념에서는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문학선집의 구성, 비평, 편집, 결 텍스트(paratext), 번역텍스트 등에 지속적으로 다시쓰기의 사회문화적 과정이 적용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문학텍스트의 수용 여부를 통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 즉 권력, 이데올로기, 미학적 기준, 제도, 시장 등의 이슈가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ibid: 2).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문학정전 번역 사례를 이러한 다시쓰기 관점에서 시대별 언어적 변이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

4. 21세기 초 한국출판시장의 문학정전 ‘다시쓰기’

“고전의 식탁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다. 가장 큰 탈바꿈은 ‘고전 아예 다시쓰기’다. 고전의 지은이가 살았던 당대와, 오늘의 독자가 사는 현대의 어법이 버무려진 채, 고전의 식탁에 올려지는 일종의 ‘퓨전요리’다.

“몇 해 전만 해도 누가 감히 고전을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학계에 그럴 만한 필자도 없었고요. 지금은 인터넷 덕분에 권위를 흔들어대는 ‘닷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난해한 고전의 권위 추락이죠. 그 결과가 바로 고전을 지금 어법대로 독자가 읽을 수 있게 다시 쓰려는 글쓰기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비출판사의 유재건 대표의 말이다(한겨레 2005. 5. 19)

21세기 초 한국사회의 문학정전 ‘다시쓰기’ 흐름은 대형출판사들의 세계문학전집 출간 붐에서 비롯되었다. 1998년 문학전집 시장에 뛰어든 민음사를 필두로, 펭귄클래식, 문학동네, 창비, 시공사, 열린책들, 푸른숲 등이 한꺼번에 세계문학전집 출간에 뛰어들었다. 이 대형출판사들은 다양한 지역의 새로운 작품들을 소개한다는 취지와 함께, 새로운 편집과 새 번역을 앞세워 세계문학전집을 잇달아 쏟아냈다(한겨레 21 2010.12.30.)

이들은 새 전집을 출간하면서 판형, 일러스트 등 전집 디자인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홍보하는 동시에, 현대 독자를 의식한 새로워진 번역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세계문학전집의 새로운 독자층을 공략하기 위해 쉽고 참신한 번역을 다음과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아래의 진한 글씨는 문학정전 ‘다시쓰기’ 맥락을 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새로운 편집, 새로운 기획, 새로운 번역으로 민음사에서 1999년부터 출판하고 있는 세계문학전집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은 세계의 거장들과 직접 계약한 국내 최초의 세계문학전집으로 번역의 오류를 대폭 교정한 완역판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과 논술을 위한 청소년의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민음사 홈페이지)

“살림출판사의 ‘e시대의 절대문학 시리즈’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문학작품들을 **현대독자들의 호흡에 맞게 재구성한 시리즈**입니다. (살림출판사 홈페이지)

“문학전문 출판사 열린책들이 **새롭고 젊은 고전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원전번역주의에 입각한 충실하고 **참신한 번역으로 정전텍스트를 정립하고 상세한 작품해설과 작가연보를 더하여 작품에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열린책들 홈페이지)

“마리북스의 마리아카데미 시리즈는 **지금 독자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각주로 꼼꼼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어휘 선택에서도 **지금 독자들에게 친숙한 표현을 쓰되**, 그 작품에 어울리는 표현을 최대한 살려서 썼습니다. 지금 독자들에게 생소하다고 판단되는 어휘나 표현 또한 각주로 실었습니다. (마리북스 홈페이지)

위의 문학전집 출판사들은 다양한 문학정전을 동시에 펴내면서 공통적으로 새로운 독자층의 부상에 발맞춘 참신한 구성과 번역을 홍보하고 있다. 문학정전 ‘다시쓰기’ 맥락에서 다시 쓰여진 새로운 정전 번역본들이 현대독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쉽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난해해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학고전을 지금의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간명하게 해설해주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독자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문학정전 ‘다시쓰기’ 흐름은 문학정전의 전성기로 이어졌다. 우선, 많은 문학정전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느라 새롭게 다시 쓰여지면서 세계문학전집은 양적 팽창기를 맞았다. 1960~70년대 전성기를 맞았다가 80년대 들어 단행본 시대가 열리면서 눈에 띄게 위축됐던 전집 출판은 2000년대 후반 시대의 고전 열풍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례로 1998년부터 전집 발간에 나선 민음사의 경우, 2009년에 전집 목록 230권을 넘어서며 700만 부 판매를 돌파했다(한겨레 21 2010. 12.30). 또한 문학정전의 번역의 질도 한 층 성숙되었다. 20세기 말까지 국내의 세계문학전집은 양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대부분 해적판이었고, 중역(重譯)과 축역이 많아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즉, 원작의 작가 및 출판사와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고, 기존 번역본을 그대로 짜깁기하며, 번역의 질도 낮아 혹평을 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2000년대에 접어들어 대형출판사들이 ‘다시 쓰여진’ 문학전집을 잇달아 펴내기 시작하면서, 문학정전 번역본의 번역의 질이 한층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시사인 2010. 1.11).

이렇게 21세기에 접어들어 문학정전 ‘다시쓰기’ 흐름을 타고 새롭게 번역된 문학정전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배경의 한편엔, 동시대 청소년 독자들이 문학정전의 주 소비층으로 갑자기 떠오른 시장의 현실이 있었다고 분석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출판시장에는 대입논술시장을 겨냥한 고전 열풍이 불었다. 주요 대학들의 논술 문제에서 고전 제시문이 대거 출제되면서, 고전 읽기가 논술 시험의 핵심 과제가 되어, 청소년들은 동서양의 고전을 충분히 습득할 것을 요구받았다(중앙일보 2006. 2.14). 출판사들은 이러한 흐름을 타고 청소년용 고전을 집중적으로 번역, 소개하기 시작했고, 청소년들이 곧 세계문학전집의 주요 독자층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급팽창한 국내 세계문학전집 시장에서 문학정전의 수요층이 기존의 20~30대 문학 전공자 학생 이외에 청소년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40~50대 부모 세대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새로운 주요 독자층을 공략하기 위해 보기에 불편하고 어휘도 어색했던 기존의 문학정전들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 새로워진 문학정전들은 동시대 감각에 맞게 참신한 번역과 친숙한 어휘를 내세우며 새롭게 부상한 현대독자들에게 적극 다가갔던 것이다(한겨레 2010. 1.11).

한편, 번역텍스트의 생성과 관련하여, 문학정전의 주요 수용자로 새롭게 떠오른 청소년 세대의 언어생활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한자 지식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세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동안에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언론에서 ‘한자문맹세대’라고도 불린다. 한문은 국내 중고교에 6차 교육과정(1992년 10월~1997년 12월)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필수 교과였지만, 1990년대 한글전용론에 밀려 6차 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한문은 이후에도 7차 교육과정(1998년~2007년)을 거치면서 프랑스어, 일본어 등 제 2외국어와 같은 수준으로 위상이 약화되었다(한국경제 2016. 10.6).

제도권 교육에서 한자교육 환경에 덜 노출되고, 작품 배경지식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독서 능력은 이들이 주요 독자층으로 부상한 문학정전의 번역텍스트 생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출판번역이 출판 고유의 맥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새로운 독자들이 다른 상황에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번역텍스트를 출판하는 과정(강지혜 2007: 8)임을 상기해보면, 분명한 상업적 목적을 지니고 광범위한 청소년 세대를 주요 독자층으로 삼아 새롭게 수행된 문학정전의 출판번역은 이들 독자의 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유관하다고 판단되는 문학정전의 번역텍스트 다시쓰기 양상은 5장에서 자세히 후술한다.

21세기 초 국내 출판시장에서 청소년 세대는 세계문학정전의 주된 소비층으로 떠올랐다. 문학정전의 독자층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논술시험을 대비하는 청소년 독자층이 문학정전 번역본의 주요 수용자로 간주되었다. 이는 곧 문학정전의 번역에서 이들의 언어적 능력과 지식 습득의 측면이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문학정전의 난해하고 심오한 의미를 주 수용자인 청소년 독자층이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번역은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초 한국사회의 문학정전 ‘다시쓰기’ 맥락을 간명하게 정리해보면 문학정전의 주요 고객층으로 새롭게 떠오른 청소년 세대를 위한 쉽고 친숙한 번역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시쓰기’ 흐름 속에서 다시 쓰여진 문학정전들이 잇달아 쏟아져 나왔다.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대입논술시장의 확대에 의해 문학고전시장이 활성화되자, 대형출판사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숙한 번역을 거친, 새로운 감각의 문학정전 번역본들을 대거 출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문학정전의 ‘다시쓰기’ 맥락에서 다시 쓰여졌다고 판단되는 문학정전 『아큐정전』의 번역텍스트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 다시쓰기 양상을 언어적 층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5. 『아큐정전』 한역본의 시대별 다시쓰기 양상

본 절에서는 상술한 문학정전 ‘다시쓰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문학정전 『아큐정전』의 번역텍스트가 언어적 층위에서 어떻게 다시쓰기 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텍스트는 본고에서 제 2기라고 명명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아큐정전』 한역본 8종이며, 이 번역출판물들은 제 1기의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출판된 기타 『아큐정전』 한역본 8종과 비교,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술한 맥락 속에서 번역의 다시쓰기를 통해 『아큐정전』의 번역텍스트가 어떠한 언어적 변이를 갖게 되었는지 시대적으로 기술하는 연구이므로, 상술한 맥락과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번역출판물이 중점적으로 선택되었다.

선택된 제 2기의 번역출판물들은 그것의 겉텍스트 혹은 출판사의 홍보문구에서 대부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독자를 위한 새로운 번역을 표방하였다. 살림출판사의 『아큐정전』은 고전 번역에 오른 문학작품을 현대독자의 호흡에 맞게 재구성한 시리즈 목록 가운데 하나였고, 글누림출판사의 『아큐정전』은 “국문학 교수들이 추천한 글누림세계명작선 목록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었다. 문학동네의 『아큐정전』은 그것의 겉텍스트에서 새로운 번역과 강렬한 판화로 만나는 중국근대문학의 이정표로 홍보되었으며, 너머북스의 『아큐생명의 여섯 순

간』은 고전새로읽기를 표방하였다. 본고에서 분석될 『아큐정전』을 펴낸 푸른숲 주니어의 푸른숲징검다리클래식은 청소년의 눈높이를 정조준한 맞춤형 클래식 시리즈로 홍보되고 있었으며, 마리북스출판사 역시 홈페이지에서 “종합출판사를 지향하고 있던 하지만 현재는 ‘10대 도서’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고 명시하면서 마리북스의 『아큐정전』이 ‘청소년용 고전’임을 암시해주었다.

본 절에서는 상술한 문학정전 ‘다시쓰기’맥락에서 문학정전 『아큐정전』의 번역텍스트가 언어적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쓰였는지 시대별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아큐정전』 번역텍스트의 언어적 변이 양상을 제 1기와 제 2기로 나누어 서로 비교해보고 그 변이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여기서 주요 분석 대상은 제 2기의 번역텍스트이며, 이것의 언어적 변이 양상은 제 1기에 이루어진 번역텍스트와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다.

5.1 어휘의 시대적 변화

언어는 통시적으로 생성되고, 변화하며, 소실된다. 특히, 의미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 문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휘의 경우, 그것이 소실되거나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다. 있었던 어휘가 없어지거나 없었던 어휘가 새롭게 생겨나는 속도는 음운변화나 통사변화에 비해 훨씬 빠르다(브리태니커백과사전).

번역문의 어휘 역시 번역 시점의 목표문화권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지므로 특정 시점의 사회상을 반영한 언어습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원작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재번역되고 있다면, 재번역된 번역물의 어휘는 번역 시점의 목표문화권 언어상황을 반영하여, 가변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임순정 2010: 8).

본 연구에서 제 1기에 이루어진 번역텍스트에서는 제 2기의 현대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옛스러운 어휘 표현이 종종 관찰되었다. 반면, 제 2기의 번역텍스트에서는 기존의 ‘낯선’ 어휘들이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시쓰기된 양상이 발견되었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진한 글씨는 언어적 변이 양상이 중점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되는 어휘 부분이다.

(1) 제 1기

손수레꾼이나 장돌뱅이 따위가 쓰는 말씨로 (1978.2 삼성출판사)

리어카꾼이나 행상인의 문장 (1978.11 동서문화사)

리어카꾼이나 장돌뱅이 따위가 쓰는 말 (1983.8 학원사)

(2) 제 2기

길거리 노점상들이나 쓰는 천박한 수준의 문체 (2006.9 살림출판사)

길거리 장사치나 쓰는 속된 말 (2013.12 푸른숲주니어)

(3) 제 1기

여전히 아큐에게 **삿일**을 해달라는 사람은 없었다 (1978.2 삼성출판사)

모두들 지금까지 **삿꾼**이 없어서는 안되는 집들이었는데 (1986.7 어문각)

(4) 제 2기

여러 날 쟤 아무도 그에게 **일**을 맡기러 오지 않았다 (2006.7 살림출판사)

이 집들은 여태까지 **일거리**가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2011.12 글누림출판사)

(1)과 (2)의 번역의 기반이 되는 원문은 “나의 글은 수레를 끌어 콩국이나 파는 이들이 쓰는 비천한 문체로(因爲文體卑下, 是引車賣漿者流所用的話) 정도로 읊길 수 있다. (1)과 (2)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면 모두 번역 시점 목표문화권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원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를 중심으로 관찰해보면, (1)과 (2)의 번역 시점 간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여 (2)의 현대독자들에게 장돌뱅이, 행상인, 리어카꾼 등의 어휘는 어색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을 나타내는 장돌뱅이, 행상인, 리어카꾼 등의 어휘는 제 2기의 시점에선 마주치기 힘든 사회상을 묘사하는 어휘군이다. 또한 (2)의 주요 독자층이 청소년 세대임을 감안해보면, 제 2기에 이루어진 (2)의 번역텍스트에서는 이들 세대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필요성이 더 컸을 것이다. 이들 독자에게 익숙한 현대적 표현으로 다시 써야 텍스트의 이해가 보다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한 데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을 의미하는 **삿**이 들어간 (3)의 **삿꾼**이나 **삿일**(短工, 幫忙) 역시 (4)의 현대독자에게 생경하거나 난해한 어휘

일 수 있다. (3)의 샅꾼이나 샅일은 (4)의 번역 출간 시점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어휘 표현이 아니다. 이들 옛스러운 표현은 오늘날 그 일상적 쓰임을 상실하여,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꾼 등의 현대적 어휘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2), (3), (4)의 번역 사례에서는 어휘의 시대적 변이 양상이 관찰되었다. (2)와 (4)에서는 번역 시점의 주요 수용자들을 위해서 (1)과 (3)에 비해 동시대의 쉽고 친숙한 표현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상술하였듯, 언어의 시대적 변화로 인한 번역텍스트 어휘의 다시쓰기 양상은 번역 시점의 시간 차 그리고 (2)와 (4)의 텍스트 수용자가 주로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5.2 난해한 한자어 사용의 감소

다음 (5), (6)의 번역 사례를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해보면, 제 1기에 이루어진 (5)의 번역텍스트에서는 난해하고 딱딱한 한자어 표현이 텍스트 전반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 2기의 (6)에서는 평이하고 친근한 한자어와 고유어를 두루 살려 훨씬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5)제 1기

아큐하고 **동종(同宗)**이 되는 줄도 모를뿐더러 (1978.2 삼성출판사)
 그의 이전 **행장(行狀)** 역시 애매했다 (1978.2 삼성출판사)
 수재에게 은화 4원의 **입체금(立替金)**을 청구해 받았다 (1978.11 동서문화사)
 전씨의 일족만이 **심궤(深閨)**가 있는 대저택에 살고 있었고 그 밖에는 십
 중팔구가 **천궤(淺閨)**이지만 (1978.11 동서문화사)
 ‘가을에 여름 일을 행하는 것’은 번발을 틀어 엮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영단(英斷)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1983.8 학원사)
 문장의 **명목(名目)**이다 (1983.8 학원사)
 묘법(妙法)으로 **원적(怨敵)**을 극복해버리면 (1986.7 어문각)
 여자가 혼자 밖을 걸어다니고 있는 것은 보나마나 **간부(間夫)**를 끌기 위
 해서이고 (1987.6 풍림출판사)
 술집의 **사동(使童)**도 주인도 통행인도 의심쩍어하면서 (1987.6 풍림출판사)
 온 집안이 **호읍(號泣)**했던 것이다 (1987.7 금성출판사)
 중국의 정신문명이 세계에서 **관절(冠絶)**하는 하나의 증거 (1987.7 금성출
 판사)

아큐의 눈에는 젊은 비구니 따위야 **초개(草介)**처럼 보였다 (1987.7 금성출판사)

(6)제 2기

글의 **제목**이다 (2003.11 선학사)

여인이 바깥을 나다니면 틀림없이 **외간남자**를 유혹하려 하는 것이고 (2003.11 선학사)

온 집안이 **울고불고** 했기 때문이다 (2006.4 살림출판사)

중국의 정신문명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한 증거 (2006.4 살림출판사)

내가 아큐와 **한 집안**인지도 모르겠고 (2011.2 문학동네)

젊은 비구니 따위야 원래 아큐가 **티끌**처럼 여겨오던 (2011.2 문학동네)

첸씨와 자오씨만이 **큰 저택**을 가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초라한 집**들이었지만 (2011.3 열린책들)

늦가을, 이 때 번발을 틀어 올린 사람들에게는 실로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2013.12 푸른숲주니어)

이런 절묘한 방법들로 적을 이기고 나면 아큐는 즐겁게 술집으로 달려갔다 (2013.12 푸른숲주니어)

아큐는 이름과 본적은 물론이고 그가 살아온 **내력**조차 분명치 않다 (2018.1 마리복스)

(5)에서는 지금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동종(同宗), 행장(行狀), 간부(間夫) 등의 경직된 한자어 표현이 번역텍스트 전반에 두루 나타난다. 이들 표현의 의미를 쉽게 풀어보면, 동종(同宗)은 한 조상에서 내려온 성과 본이 같은 일가를, 행장(行狀)은 죽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내력을 적은 글을, 입체금(立替金)은 남이 할 일을 대신 받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간부(間夫)는 간통하는 남자를 가리킨다. 또한 사동(使童)은 잔심부름 하는 아이를, 호읍(號泣)은 목 놓아 큰 소리로 우는 울음을, 관절(冠絶)은 가장 뛰어난, 초개(草介)는 풀과 티끌을 의미한다. 심궤(深閨)는 여자가 거처하는, 집에서 깊이 들어앉은 방을, 천궤(淺閨)는 작가 루원이 만든 조어로서 초라한 집의 규방을 가리킨다. 영단(英斷)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원적(怨敵)은 원한이 있는 적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6)에서는 한 집안, 외간 남자, 티끌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 및 고유어 표현을 통해 난해한 한자어 사용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가독성을 기준으로 (6)을 분석해보면, (6)은 부자연스러운 한자어 표현이 아예 생략되거나 쉬운 한자어 및 고유어로 명료하게 다시쓰기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6)에서 원문에 충실한 난해한 한자어 대신 읽기 편한 한자어 및 고유어 중심으로 번역이 된 데에는 (6)의 주요 독자층이 청소년 중심의 현대독자임을 감안할 때 원작의 의미를 되도록 평이한 언어표현으로 구현해야한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 즉, 될수록 어려운 한자어를 피하고 원작의 의미를 평이하고 친숙한 어휘로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난해한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하면 글의 가독성이 높아진다. 특히, 고유어의 경우,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고유어 대부분이 옛날부터 쓰였던 입말에서 비롯되어, 독자의 삶에 이미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을 할 때 고유어를 많이 써주면 독자가 읽기 편해지므로 텍스트의 가독성이 향상된다 (이희재 2009: 282-283).

(5)와 비교해볼 때 (6)에서는 쉽고 친숙한 한자어 및 고유어의 특성을 이용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읽고 소화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가독성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텍스트 전반에 걸쳐 관찰된다.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듯, 2013년에 출판된, 푸른숲주니어의 『아규정전』 결텍스트에서는 “작품이 본디 지닌 맛과 재미를 고스란히 살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읽고 소화하기 쉽게 글을 다듬었다 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원작이 중국어로 쓰여진 문학정전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평이하고 현대적인 어휘로 번역을 하면 한자어 고유의 묘미가 사라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주요 독자층을 크게 의식하여 가독성 중심의 쉽고 친숙한 어휘의 사용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3 풍성한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에 기반한 고유어의 확장

다음 제 2기 (8)의 번역텍스트에서는 제 1기 (7)의 그것과 견주어볼 때,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성하게 사용되어 고유어 어휘가 확장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8)에서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 “웅성웅성 및 “낄낄 등과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부사 “어질어질 및 “쭈뼛쭈뼛 등이 대거 사용되면서 보다 실감 나는

문장과 함께 한층 평이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제 1기

다행히도 **딱딱** 소리가 난 다음에는 마치 한 사건을 끝맺은 것 같아
(1978.2 삼성출판사)

진흙이 **주룩주룩** 떨어졌다. 아큐는 다리가 **덜덜** 떨렸다 (1978.2 삼성출판사)

조영감이 겁먹은 눈초리로 은근한 소리로 불렀다 (1978.2 삼성출판사)

그런데 뜻밖에도 백리 사방에 이름이 알려진 거인 영감마저 그것을 이렇
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1978.11 동서문화사)

다행히 **딱딱** 하는 소리가 나고 나서는, 마치 한 사건이 일단락된 듯 싶어
(1983.8 학원사)

비록 조금 후끈거리긴 했어도 마음이 흡족해서 의기양양하게 누워버렸다
(1983.8 학원사)

산들바람이 불어 여름 기운이 제법 감돌았지만, 아큐는 서늘함을 느꼈다
(1983.8 학원사)

그러나 노인이 눈짓을 하자 아큐는 다시 유치장안으로 처넣어졌다
(1986.7 어문각)

아큐는 다 헤어진 겹옷을 벗어 뒤집어 보았다 (1986.7 어문각)

그 뒤 수염의 왕은 오랫동안 머리가 이상했다 (1987.6 풍림출판사)

그는 길모퉁이에서 기어나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시끌시끌한 것** 같다
(1987.7 금성출판사)

평 하고 머리에 뭔가 거친 것이 떨어졌다. 그가 황급히 돌아보니 수재가
커다란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의 앞에 서있었다 (1987.7 금성출판사)

구경꾼들이 만족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하지 않았다 (1987.7 금성출판사)

그런데 뜻밖에도 백리 사방에 이름이 알려진 거인나오리마저 그것을 이렇
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1991.4 해원출판사)

조나리는 천천히 걸어가더니 그의 전신을 아래위로 훑어보며 말했다
(1991.4 해원출판사)

이 소식은 당장 그 다음날에 온 미장에 퍼졌다 (1994.9 청목출판사)

아큐는 그녀에게 다가서자 깎은지 얼마 안되는 그녀의 머리를 별안간 손
을 뻗쳐 문지르고는 **히죽히죽** 웃으며 말했다 (1994.9 청목출판사)

(8)제 2기

그리고 이상하게도 **팍팍** 하고 얻어맞은 후보다 온 몸이 더욱 가벼워진 듯
하였고, **등실등실** 날아갈 것만 같았다 (2003.11 선학사)

흙이 **주룩주룩** 계속 떨어졌고, 아큐의 발은 **후들후들** 떨렸다 (2003.11 선학사)

우마는 잠깐 얼떨떨해하더니 갑자기 **부르르** 떨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2006.9 살림출판사)

그래서 **살금살금** 길모퉁이를 빠져나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뭔가 **웅성웅성**하는 것 같았다 (2006.9 살림출판사)

그런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무거운 것이 머리를 내리쳤고, **화들짝** 놀라 몸을 돌리자 생원이 대나무 몽둥이를 들고 그의 앞에 서있었다 (2011.2 문학동네)

그는 벌써부터 두 눈이 **깜깜해지고** 귀가 **윙윙**거리고 온 몸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2011.2 문학동네)

왕털보는 그 뒤로 오랫동안 머리가 **어질어질** 혼미했다 (2011.2 문학동네)
구경꾼들이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싸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2011.3 열린책들)

아큐가 그녀 곁으로 바짝 다가가서 손을 **쑥** 내밀어 새로 깎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결결** 웃으며 말했다 (2011.3 열린책들)

살랑거리는 미풍에 여름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큐는 여전히 **으스스** 추위를 느꼈다 (2011.3 열린책들)

이 새 소식은 다음날 바로 온 웨이창 동네에 **쑹** 퍼졌다 (2011.12 글누림출판사)

그러자 노인은 **홀깃** 눈짓을 했고, 아큐는 다시 목책 문 안으로 끌려들어갔다 (2011.12 글누림출판사)

술 몇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남들과 **악자지결** 농담을 하고 한바탕 입씨름을 벌여서 이기면 (2013.12 푸른숲주니어)

여전히 뺨이 얼얼하기는 했지만, 만족한 그는 의기양양하게 **벌렁** 드러누웠다 (2013.12 푸른숲주니어)

자오나리가 **쭈뼛쭈뼛**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추어 아큐를 불렀다 (2013.12 푸른숲주니어)

아큐도 낱아빠진 겹저고리를 벗어 **쑥** 훑어보았다 (2013.12 푸른숲주니어)
사방 백리 안에서 명성이 **뜨르르한** 거인영감조차 그렇게 **벌벌** 떨 줄이야! (2015.8 너머복스)

신기하게도 온몸이 **딱딱** 소리가 난 뒤보다 더 가벼워지고 **훨훨** 날아간 듯했다 (2018.1 마리복스)

인근 백리에 걸쳐 이름이 **뜨르르한** 거인나리도 저렇듯 두려워한다니 그로서는 신명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2018.1 마리복스)

(8)에서는 (7)과 견주어볼 때 시대적 다시쓰기를 통해 풍성한 의성어,의태어 위주의 번역텍스트가 생성되었다. 예컨대, “길모퉁이에서 기어나와 가 “살금살금 길모퉁이를 빠져나와 로, “아큐는 서늘함을 느꼈다 가 “아큐는 으스스 추위를 느꼈다 로 다시 쓰여지면서, 실감나는 고유어 부사어를 통해 그때그때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한국어 부사는 동사가 가리키는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묘사할 때 쓰이고, 한국어 고유어부사의 정수인 의성어,의태어는 어떤 대상이 시간 속에서 나타내는 변화를 순간순간 개별적으로 섬세하게 나타내는 데 알맞은 말이다(이희재 2009: 115-118).

(8)에서 (7)에 비해 의성어와 의태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8)의 번역텍스트가 실감나는 부사어로 어떤 대상이 변화하는 순간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고유어 어휘 사용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이전 시대의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장이 보다 생생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전환되었음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8)에서는 ‘무미건조해 보이는’ 문장에 실감나는 의성어,의태어 표현이 덧붙여져, 섬세한 상황 묘사와 함께 고유어 어휘 사용이 확장되었다. (8)에서는 또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번역 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난해한 한자어 사용의 감소와 함께 풍성한 의성어,의태어 사용을 중심으로 평이한 텍스트 구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유어 확장 흐름 역시 새롭게 부상한 현대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한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쓰지도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배제하고, 많은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어 표현법을 의식적으로 택하여 다시 씌우로서, 훨씬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를 제공하여 가독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5.4 문화소 번역의 자국화 구현 확장

문화소는 광의적으로 문화관련 어휘를 일컫는다. 문화관련 어휘는 원천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역사, 사회, 경제, 정치, 언어관습 등을 둘러싸고 고유한 특정 문화에서 비롯된 어휘이다. 문화소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 등의 고유명사, 원천문화권의 관습 등과 관련된 문화관련 어휘, 특정 사건 및 인물과 관련된 어

회, 속담, 은어, 관용구 등의 관용어, 화폐, 중량, 거리, 높이 등의 도량형 어휘로 분류할 수 있다(이근희 2008: 248-249).

자국화(domestication) 번역은 목표문화권을 기준으로 원천텍스트의 이질성을 최소화시키며, 유려하고 자연스러운 목표문화권 언어를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번역 방법이다(Venuti 1995: 21).

제2기에 생산된 『아큐정전』 한역본 번역텍스트에서는 제1기의 그것과 견주어볼 때 원작의 문화소가 목표문화권의 수용자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전환되어 번역되는 예를 보다 많이 볼 수 있었다. 문화소 번역의 자국화가 보다 많이 이루어진 번역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9)제 1기

자꾸만 망설였던 것은 나 자신이 **입언(立言)**의 인간이 아님을 잘 알기 때 문이다 (1978.2 삼성출판사)

망설여지고 마는 걸 보면 내가 그 말을 후세에 전할 만한 위인이 못 되기 때문일 것이다 (1978.11 동서문화사)

자꾸 망설여지는 것은 내 자신이 **입언(立言)**의 인물이 아님을 잘 알기 때 문이었다 (1983.8 학원사)

망설이게 되는 걸 보면 내가 **입언(立言)**의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86.7 어문각)

만약 **죽백(竹帛)**의 기록을 거론한다 치면 이 문장이 첫 번째가 될 것이므로 (1978.2 삼성출판사)

만약 **죽백(竹帛)**에 기록한다고 거론한다면 이 글이 첫 번째인 셈이니 (1983.8 학원사)

죽백(竹帛)의 기록을 거론한다 치더라도 아마도 이 문장이 제일 첫 번째가 될 것이며 (1986.7 어문각)

하물며 이를 **죽백(竹帛)**에 나타낼 독지가는 없다 (1987.6 품림출판사)

향차 **죽백(竹帛)**에 기록해둘 독지가가 있을 리가 없다 (1987.7 금성출판사)

하물며 ‘**죽백(竹帛)**에 기록한다’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1991.4 혜원출판사)

(10)제 2기

내가 ‘후세에 **훌륭한 글을 남길만한 인물(立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03.11 선학사)

내가 **문장가가** 못 된다는 확실한 증거이리라 (2011.2 문학동네)

내가 후세를 위해 뭔가를 기록할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2011.3 열린책들)

나는 뛰어난 문필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1.12 글누림출판사)
 ‘만약 기록으로 남긴다’는 걸로 따지자면 이 글이 맨 처음인 셈이니 (2006.9 살림출판사)

그의 이름이 대나무와 비단에 적혀 역사에 전해질 리도 없다 (2011.2 문학동네)

역사에 기록되는 것에 관해 논하자면 이 들을 첫 번째로 꼽아야 하는 만큼 (2011.3 열린책들)

그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면 이 글이 처음인 셈이니 (2013.12 푸른숲주니어)

그러니 어찌 ‘청사에 길이 남을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2015.8 너머북스)

그러니 어찌 ‘죽백에 적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일이 있겠는가? (2018.1 마리북스)

(11)제 1기

심지어는 문동(文童) 두 분에 대해서까지도 (1978.2 삼성출판사)

심지어 장차 수재(秀才)가 될 두 사람의 문동(文童)에 대해서까지도 (1978.11 동서문화사)

심지어는 두 문동(文童)에게조차 가소로운 심정을 품고 있었다 (1987.6 풀림출판사)

심지어 두 사람의 문동(文童)에 대해서는 일소(一笑)의 가치도 없다고 (1987.7 금성출판사)

수재는 이 훈계를 듣고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1978.2 삼성출판사)

수재는 이 정훈(庭訓)을 듣고 그럴듯하게 생각되어 (1978.11 동서문화사)

수재는 이 정훈(庭訓)의 훈계를 듣고 그럴듯하게 생각되어 (1983.8 학원사)

수재는 이 정훈(庭訓)을 듣고 과연 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986.7 어문각)

(12)제 2기

두 ‘학동’조차도 일소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2003.11 선학사)

생원시험 준비를 하는 동네 두 글방도령조차도 (2011.2 문학동네)

심지어 두 문동(文童)에 대해서도 일소의 가치도 없다는 듯한 (2011.3 열린책들)

심지어 두 분의 ‘글방도령님’마저도 일소의 가치조차 없다고 (2018.1 마리북스)

수재는 ‘부친의 교훈’을 듣고서 아주 그럴듯하다고 여겨 (2003.11 선학사)

수재도 ‘부친의 훈계’를 듣자 과연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 (2006.9 살림 출판사)

수재는 부친의 훈계를 듣고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판단하고는 (2011.3 열린책들)

수재는 ‘부친의 가르침’을 듣고 과연 그렇다 여겨 (2018.1 마리북스)

제2기에 생성된 (10)의 번역텍스트에서는 원작텍스트의 문화소 “입언(立言)과 “죽백의 기록(著之竹帛)의 번역이 자국화되는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입언은 불후(不朽)의 말을 후세에 남긴다는 의미이며, 『좌전(左傳)』에서 유래되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라고도 불리는 『좌전』은 중국 고대의 역사서 『춘추(春秋)』를 해설한 주석서이다(김진욱 1987: 77). 죽백의 기록(著之竹帛)의 출처는 전국시대 진(秦)나라 승상이자 사학자 여불위(呂不韋)가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이다. 죽백의 기록(著之竹帛)이란 문화소 표현은 인물의 공적을 죽간이나 비단에 기록한다고 직역할 수 있다(장박문 2018: 66). (10)에서는 중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이 문화소들이 “뛰어난 문필가 나 “그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면 등으로 번역되면서, 원작의 문화적 특색이 나타나는 요소가 제거되어 낮설고 난해한 내용이 단순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제2기에 생성된 (12)의 번역텍스트에서도 (11)과 비교해보았을 때, 원작의 문화소 문동(文童)과 정훈(庭訓)이 “글방도련님 이나 “부친의 가르침 등으로 번역되면서, 문화소 번역이 보다 자국화되는 흐름이 관찰되었다. 문동은 아직 수재가 되지 못한, 과거시험 준비생을 가리킨다. 정훈은 아버지의 교훈이란 의미로 『논어(論語)』에 나온다. 공자(孔子)가 서있는데 아들 공리(孔鯉)가 마당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공자가 불러 세워 시(詩)와 예(禮)를 배우도록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김진욱 1987: 79). (12)에서도 원작의 문화소 번역이 대체로 목표문화권인 한국문화 중심으로 자국화된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원작의 이질성을 살려 원작텍스트의 문동과 정훈을 그대로 음차해서 번역하지 않고, “글방도련님 이나 “부친의 가르침 으로 번역한 것은 한국문화의 관점에서 원작의 문화소가 새로운 수용자를 위해 익숙한 표현으로 다시쓰기 되었음을 나타낸다. 학동과 생원시험이란 자국화 표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제2기의 (10)과 (12)에서는 원작 문화소의 생경함이 대체로 제거되고, 그것의 번역이 단순화되고 자국화된 번역텍스트가 생성되었다. 원작 문화소에 내포

된 함축적 의미나 정보가 생략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목표문화권 독자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단순하게 대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소 번역의 자국화 경향 확산은 시공간적 제약이나 문화적 차이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제2기에 생성된 문학정전 텍스트의 주 수용자가 청소년 독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원작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주 독자층을 의식하여, 원전텍스트의 문화소 의미를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목표문화권의 친숙한 표현으로 명료하게 다시 씌우면서 독자의 명쾌한 이해를 도모하는 번역텍스트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문학정전은 시대적 현실 속에서 번역을 통해 상이하게 수용되며, 특정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시 쓰여진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번역과 문학정전의 시대적 수용의 또 다른 양상을 언어적 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문학정전 『아큐정전』 번역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언어적 층위에서 다시쓰기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시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21세기 초 국내 출판시장의 변화가 문학정전 번역의 중요한 맥락의 하나가 된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다시쓰기의 어휘적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우선 제 1기(1978~1994)에 출판된 『아큐정전』 한역본의 번역텍스트와 제 2기(2003~2018)에 출판된 그것들을 상호 비교분석한 후, 어떠한 어휘적 이질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기술하였다. 또한 사례분석 결과와 강한 정합성을 보이는 구체적 맥락을 선행 연구결과와 한국사회의 시대적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 2기의 『아큐정전』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적 다시쓰기 양상은 제 1기의 그것과 견주어 유형화해보면, 어휘의 시대적 변화, 난해한 한자어 사용의 감소, 풍성한 의태어 및 의성어 사용에 기반한 고유어의 확장, 문화소 번역의 자국화 구현 확장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언어적 변이양상의 시대

적 차이는 상술한 21세기 초 한국사회의 문학정전 ‘다시쓰기’ 맥락에서 정전텍스트를 읽는 주 독자층의 수용성이 크게 고려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문학정전의 주요 독자층으로 새롭게 떠오른, 청소년 수용자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전텍스트는 무엇보다도 보다 읽기 쉽게 쓰여질 필요가 있다. 원전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고 난해한 한자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독서능력을 십분 고려하여, 문학정전의 번역본 역시 이를 감안한 어휘적 표현을 중심으로 시대에 맞게 다시 쓰여야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제 2기의 『아큐정전』 번역텍스트 역시 문학정전 ‘다시쓰기’ 맥락에 부합하여 보다 향상된 가독성 구현을 보여주는 언어적 다시쓰기 양상을 나타내었다. 상술한 네 가지 다시쓰기 양상은 새로운 수용자의 정전텍스트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평이하고 친숙해진 어휘로 새로운 독자에게 다가간 시대적 결과물로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시대적 다시쓰기를 통해 보다 읽기 쉬워진, 지금의 문학정전 텍스트는 주요 독자와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사회의 문학정전 ‘다시쓰기’ 맥락에서 출판번역을 통한 문학정전의 다시쓰기 양상을 어휘 층위의 시대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 다른 시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번역현상의 연구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6) 「애니메이션 영화의 ‘다시쓰기’: 자막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 강지혜 (2007) 「출판번역과 텍스트의 재맥락화: 『셀프헬프』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 강지혜 (2013) 「경험적 연구로서의 번역사례연구: 방법론적 고찰」, 『번역학연구』 14(2).
- 고규진 (2004) 「다문화시대의 문학정전」, 『독일언어문학』 23: 83-99.
- 고규진 (2012) 『문학정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혜림 (2011) 「중환 출판번역에서 나타난 다시쓰기 형태」, 『번역학연구』 12(2).
- 라영균 (2000) 「정전과 문학정전」, 『외국문학연구』 7: 75-93.
- 박인기 (2008) 「문학교육과 문학정전의 새로운 관계 맺기」, 『문학교육학』 25(0).
- 박휴용 (2014) 『질적연구방법론』,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신기상 (2005) 「한자어의 국어화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33(1).
- 신다영 (2016) 『중환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에 대한 연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윤여탁 (2008) 「한국의 문학교육과 정전: 그 역사와 의미」, 『문학교육학』 27(0): 135-158.
-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근희 (2015) 『번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이지영 (2019) 『번역과 문학정전의 시대적 수용: 『아큐정전』 한역본 결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1972-2018)』,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임순정 (2010) 『문학작품의 재번역현상 연구: 스탕달의 『적과혹』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장박문 (2018) 『중환문학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 연구: 『아큐정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 정인모 (2008) 「정전화와 탈정전화」, 『독어교육』 43: 275-300.
- Bassnett, Susan (2014) *Transl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Lefevere, André (1992a)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New York, Routledge.
- Munday, Jeremy (2009)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chaffer, Kay and Song, Xianling (2006) 'Writing Beyond the Wall- Translation, cross-cultural exchange and Chen Ran's A Private Life',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 Studies* 3(2).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London: Routledge.
- 黃霞 (2004) 『『阿Q正傳』의接受研究』, 重慶師範大學碩士論文.

- 劉勇 (2015) 『中國現當代文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魯迅 (2014) 『阿Q正傳』, 北京聯合出版公司.
孫巧娜 (2014) 『『我是貓』與『阿Q正傳』中的社會批評比較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論文.
夏志清 (2005) 『中國現代小說史』, 復旦大學出版社.

분석대상 번역텍스트 수록 단행본(16종)

- 허세욱 옮김 (1978) 『아큐정전, 대북인(臺北人), 반하류사회(半下流社會)』, 서울: 삼성출판사.
이가원 옮김 (1978) 『아큐정전, 조화석습(朝花夕拾)』, 서울: 동서문화사.
윤화중, 강계철 옮김 (1983) 『아큐정전』, 서울: 학원사.
김진욱 옮김 (1986) 『아큐정전, 광인일기(狂人日記)』, 서울: 어문각.
김옥 옮김 (1987) 『아큐정전』, 서울: 풍림출판사.
김하중 옮김 (1987) 『아큐정전 외』, 서울: 금성출판사.
이민수 옮김 (1991) 『아큐정전』, 서울: 혜원.
안영신 옮김 (1994) 『아큐정전』, 서울: 청목.
홍석표 옮김 (2003) 『아큐정전』, 서울: 선학사.
임명신 옮김 (2006) 『아큐정전』, 서울: 살림.
김태성 옮김 (2011) 『아큐정전』, 서울: 열린책들.
신여준 옮김 (2011) 『아큐정전』, 서울: 글누림.
이육연 옮김 (2011) 『아큐정전』, 서울: 문학동네.
김택규 옮김 (2013) 『아큐정전』, 서울: 푸른숲주니어
김영문 옮김 (2015) 『아큐생명의 여섯 순간』, 서울: 너머북스.
조관희 옮김 (2018) 『아큐정전』, 서울: 마리북스.

< 신문기사 >

- 변진경 (2010. 1. 10) 「세계문학전집의 다채로운 진화」, 『시사인』, 2019년 8월
5일 검색.
신우현 (2006. 2. 14) 「논술들여다보기: 고전 활용은 이렇게」, 『중앙일보』, 2019
년 8월 6일 검색.

- 오철우 (2005. 5. 19) 「맛깔스런 고전 지성성찬으로 초대」, 『한겨레』, 2019년 8월 7일 검색.
- 허미경 (2010. 1. 11) 「세계문학전집 ‘제 2의 전성기」」, 『한겨레』, 2019년 8월 4일 검색.
- 박진 (2010. 12. 30) 「상업성에 물들고 새로운 글쓰기 탄생하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다」, 『한겨레21』, 2019년 8월 2일 검색.
- 강경민 (2016. 10. 6) 「또 불거진 ‘한글전용’ 대 ‘한자혼용’ 논란」, 『한국경제』, 2019년 8월 1일 검색.

[Abstract]

**Translation and Rewriting of Literary Canon by period :
Focusing on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True Story of Ah Q (1978-2018)**

Lee, Ji-Yo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follows my previous study 『Translation and Reception of Literary Canon by period: Focusing on the paratexts of 『The True Story of Ah Q』 (1972-2018)』. The previous study analyzed the reception phenomenon of translation in Korean translations of literary canon 『The True Story of Ah Q』,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paratexts, and demonstrated that literary canon is time and again received differently in the diverse sociocultural context through translation.

Drawing on the previous research result, this study analyses the rewriting phenomenon of translation in Korean translations of 『The True Story of Ah Q』, based on the examination of actual translated texts, as an another aspect of reception of literary canon by period through translation.

The analysis draws on the translated texts material publish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1978 to 2018. In total, the translated texts in 16 books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True Story of Ah Q』 has been analysed into two main periods, focusing on a temporal frame and provid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first period starts in 1978 and ends in 1994 in the publication of Korean translations of 『The True Story of Ah Q』. The second period starts in 2003 and ends in 2018.

After examining the data and the paratexts closely, I confirmed a hypothesis that the Korea publication market's literary canon 'rewriting' context

in the early 21th century would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ifferent rewriting patterns in the translated texts of Korean translations of 『The True Story of Ah Q』. The literary canon ‘rewriting’ context can be referred to as “new translation for the new generation. Its key aspect is the easily readable translation for teenagers, who have become the major recipient of literary canon of Korea publication market in the early 21th century.

During the second period,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translated texts of Koreans translations of 『The True Story of Ah Q』 illustrates that the linguistic rewriting can be characterized the realization of readability in translation. During the second period, from 2003 to 2018, compared with the first period, from 1978 to 1994, the noticeable features of the vocabulary rewriting in the translated texts are the change of vocabulary by period, the decrease in usage of difficult Sino-Korean, the increase in usage of Korean native words, coupled with a number of onomatopoeic words and mimetic words, and the trend toward domestication in the translation of cultural elements.

The findings i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onstant translation of literary canon is a linguistic rewriting in the diverse sociocultural context. 『The True Story of Ah Q』’s case proves that translation leads a literary canon to a new rewriting pattern in linguistic change with which translated canons become associated in target culture.

▶ Key Words: period and reception, literary canon, rewriting theory, translation and reception, 『The True Story of Ah Q』

▶ 주제어: 시대와 수용, 문학정전, 리라이팅, 번역과 수용, 『아Q정전』

이지영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박사졸업

zhiying2003@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이론, 번역현상, 사회문화적 맥락, 이데올로기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